



이 상 구 우리회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장
(주)아이맥스트럭처 대표이사

구조인의 미래상

구조를 시작한지 2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 이상 변한, 길다면 긴 시간이다. 구조인으로서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겠지만 서로의 삶을 가슴깊이 이해할 수 있음은 구조라는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여러 모양으로 구조업무를 하겠지만 구조사무실에서 실무를 하는 이들이 가장 깊은 애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원고를 부탁받고 어떤 내용을 담을까 고민하다가 구조인으로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 보며 느꼈던 생각들을 진솔하게 반추해 보고 좀 더 나은 구조인의 삶에 대해 써 보기로 했다.

처음 구조를 접하고 몇 년 동안은 사무실 내에서 항상 긴장하고 억제되고 불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 시공사 설계부 구조팀으로 가서 몇 년 일해 보기도 했다. 구조사무실보다 수입이나 복지 면에서 훨씬 나왔지만 하고 싶은 실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불편해서 몇 년 만에 다시 구조사무실로 귀향했다.

그곳에서는 소장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 원망과 서운함 등 복잡한 감정으로 생활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금은 갑님들 비위 맞추느라 늘 노심초사, 절치부심하며 살고 있다. 그때는 구조기술사가 귀해서 어디를 가나 대접받고 용역비도 어렵지 않게 받던 때였다. 그러니 법제도나 구조기술사 권익에 관한 관심은 낮았으리라. 그에 대한 맺가는 지금 세대에서 치르고 있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하루 종일 일만 생각하고 여유가 없었던 시절,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인간적인 대화나 유머, 이런 것들이 사치로 여겨질 답답한 분위기. 80년도에 구조를 시작한 분이라면 많은 부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어떤 날은 전화할 때 외에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암울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살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그랬다.

지금은 나아졌는가? 사무실을 운영 하면서도 여러 모양의 갑님들 비위 맞추느라 늘 불편하고 자존심 상할 때가 많다. 계약과 달리 갑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설명회조차 갖기 전에 이미 아웃되는 느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왜 우리 구조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인문에 관심을 갖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쫓기는 듯한 삶, 뒷사람 눈치,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늘 나의 갑과 을이 있다. 회사는 물론이려니와 직원들 사

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감정이 존재하지 않을까? 심지어 조기축구회에서도 신입회원은 총무에게 잘 보여야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있지 않은가.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조를 하다 보니 숫자와 계산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더군다나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 더더욱 감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인문에는 약하다. 유머의 여유, 생각의 유연함, 협상능력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구조인 들이 실무를 하면서도 꾸준히 인문에 관심 갖기를 바란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는가? 유머는 우선 상대를 위한 마음과 최악의 경우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여유가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세계 어떤 나라를 가 봐도 그 나라의 수준은 결국 문화적 수준이 좌우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내심은 어떻게든 관계에서는 배려와 겸손, 유머의 미덕이 있다. 이제는 건축학과 건축공학으로 나뉘어져 공학을 전공한 우리 구조인들은 인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변 누구와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첩경이다. 우리나라에 기술자 출신 장관이 한명도 없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 정치인조차도 국민의 마음을 찾고자 안달하지 않는가.

한 달에 한번은 마음을 열자

옛날을 생각하며 후배 직원들을 볼 때 항상 측은하고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혹여 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사고가 경직되지 않도록, 감성이 마르지 않도록...

한때는 매달 연극공연을 데리고 다녔다. 작년에 인덕원으로 사무실 이전을 하다 보니 거기에는 극장이 없고 영화관만 있다. 할 수 없이 요즘은 직원들과 영화를 한 달에 한편씩 본다. 영화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얘기 하다보면 이들 중에는 그 장면을 이해한 친구가 반드시 있다. 수양대군이 어땠고, 한명회가 어땠고.. 이렇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면 한 두 시간이 찰라로 흐르고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이들이 어느새 밖으로 나온다. 선배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나날이 바뀌어 가는 구조기준도 숙지해야 하고 구조 관련 신공법에도 늘 민감해야 하지만 이러한 감성발달 노력을 통해서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구조 업무에도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후배들이 내가 겪었던 무겁고 어두운 시간보단 좀 더 밝고 좋은 환경 속에서 감성의 축수를 예민하게 세우고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아가길 바란다.